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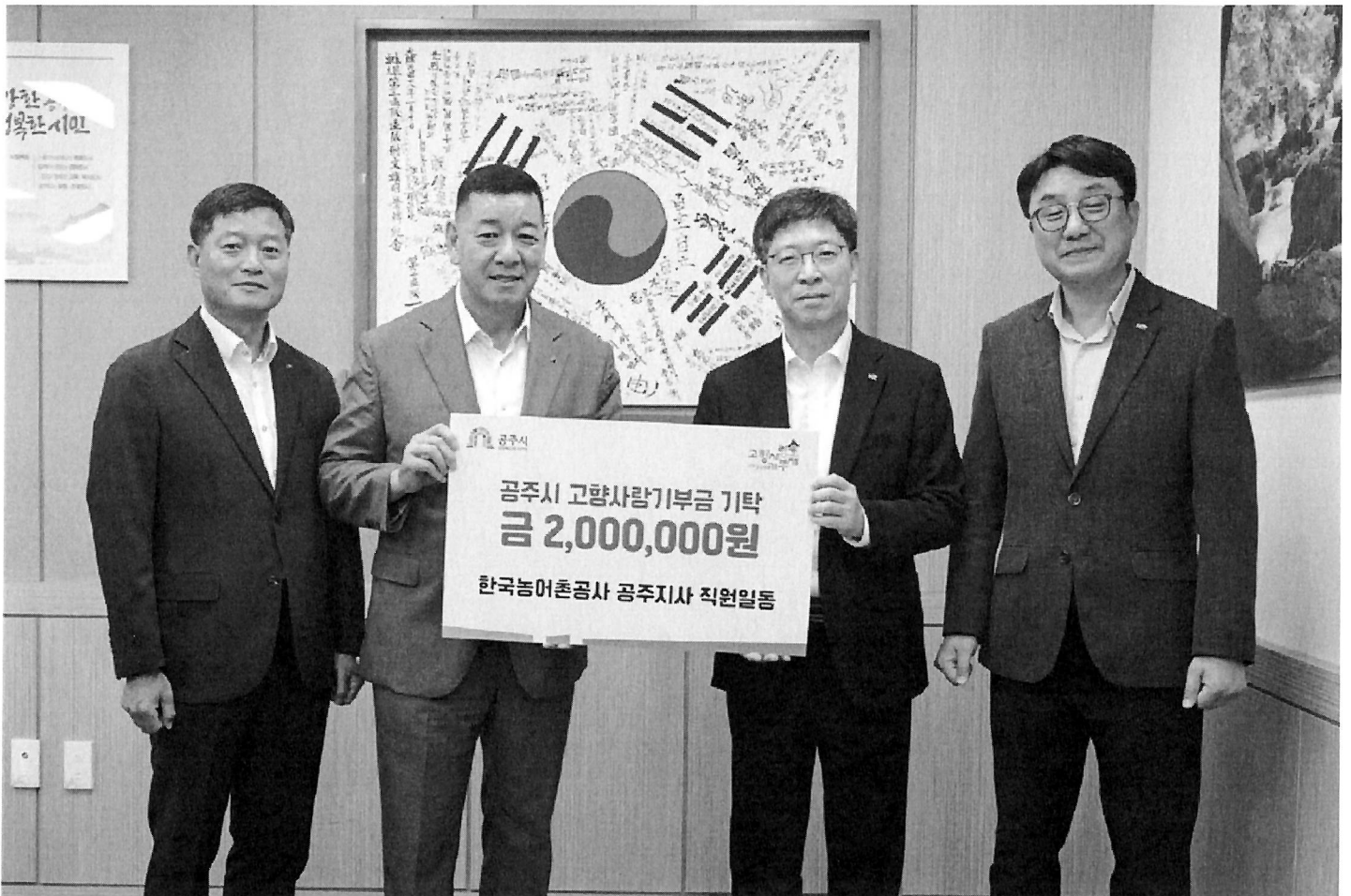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이효섭 기자 | 승인 2026.06.30 12:44

- 박수진 지사장 등 직원 20명, 공주 발전과 상생 협력위해 뜻 모아 -

충남 공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직원 일동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공주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뜻을 모아 박수진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수진 지사장은 “공주시 농업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보낸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공주=이효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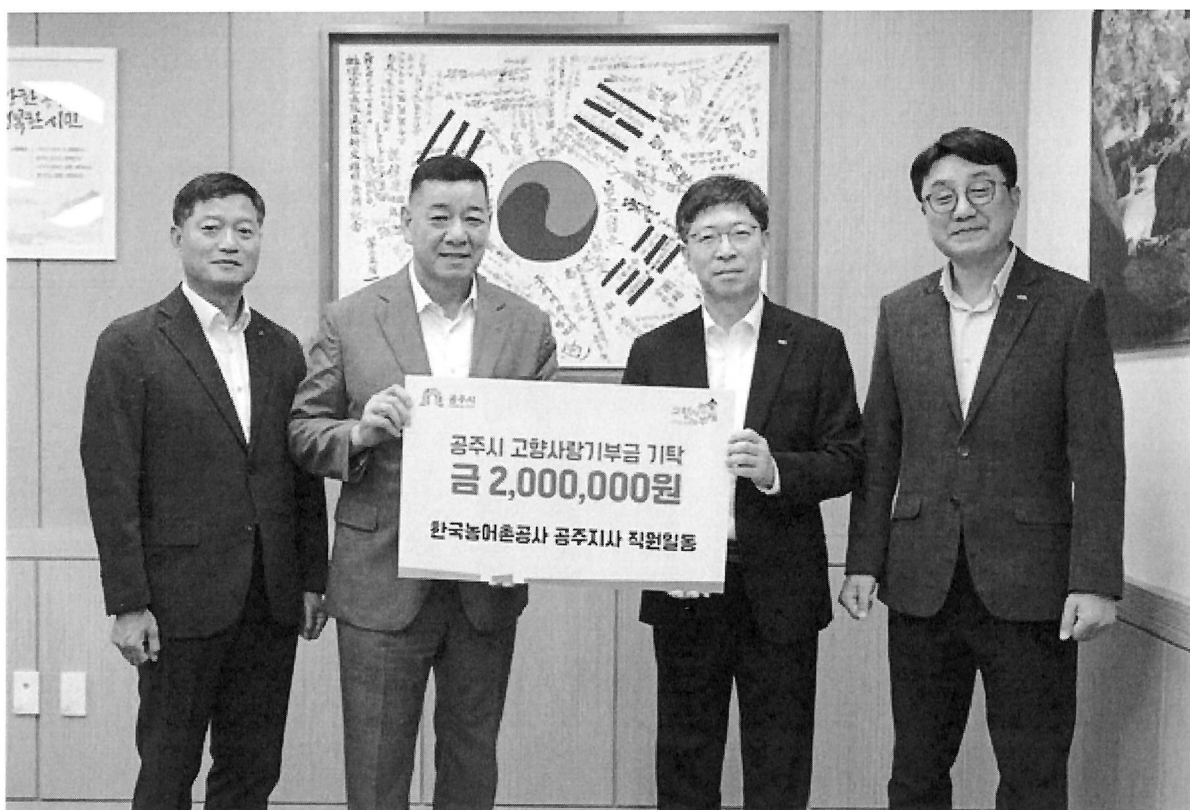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주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 길상훈 기자 | ⓒ 승인 2026.06.30 12:31

박수진 지사장과 직원 20명, 공주 발전과 상생 협력 뜻 함께 모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박수진 지사장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은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주시에 200만 원을 기탁했다.(사진제공=한국농어촌 공주지사)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박수진 지사장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은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주시에 2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날 기부금은 전 직원이 뜻을 함께 모아 공주 발전의 응원을 시작으로 상생 협력을 구축한 동참이 나눔의 의미가 힘을 보탤다.

공사는 지역 농촌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주 발전의 힘이란' 슬로건이 뜻이 모아져 상생과 나눔의 의미가 큰 힘으로 작용됐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원철 시장과 박수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오재선 부장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들도 시와 함께 논의됐다.

박수진 지사장은 “공주시 농업 발전과 늘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공주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영구치 및 교정 치료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농산물 구입비 차액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아울러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으로 공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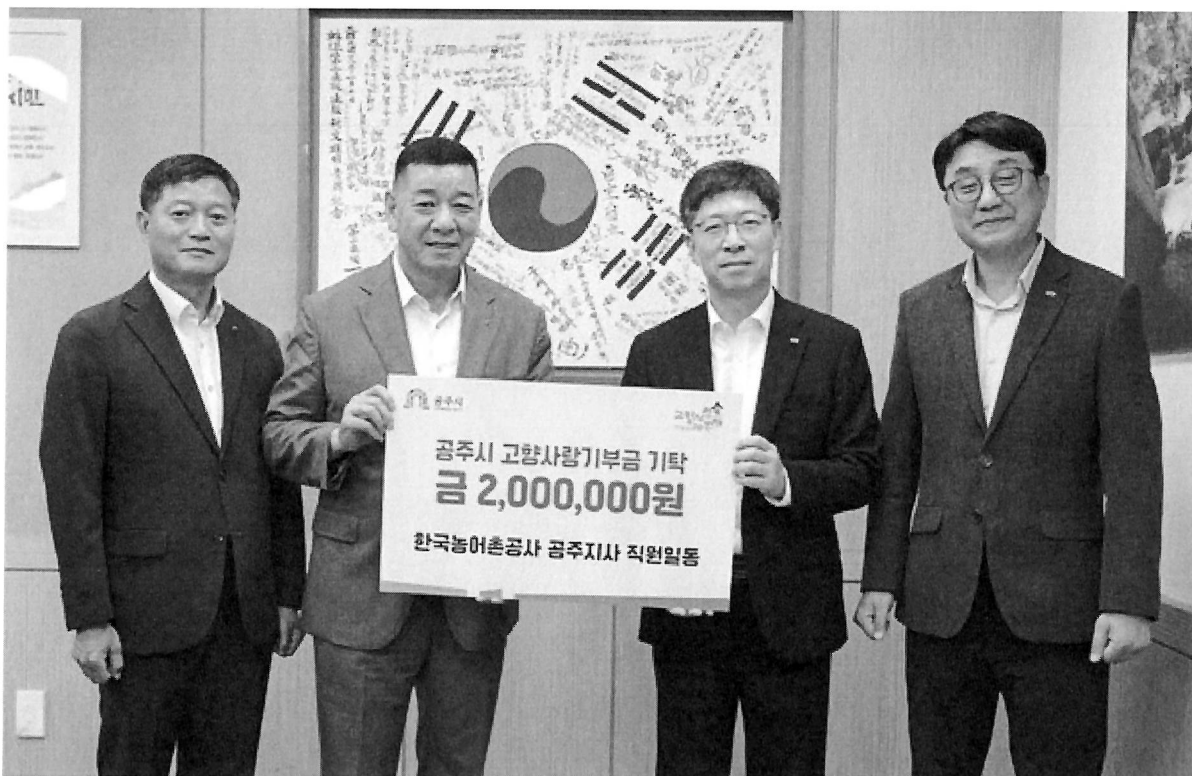
길상훈 기자 kksh123@korea.com

HOME > 지역종합 > 세종·대전·충남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주시에 고향 사랑기부금 기탁

윤소 기자 | 승인 2026.06.30 10:56

박수진 지사장 등 직원 20명, 공주 발전과 상생 협력위해 뜻 모아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박수진 공주지사장이 최원철 공주시장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공주시 제공

[충청리뷰 윤소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9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직원 일동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농촌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이 공주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 특히 박수진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원철 시장과 박수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수진 지사장은 “공주시 농업 발전과 늘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에서 공주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영구치 및 교정 치료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농산물 구입비 차액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으로 공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윤소 기자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기탁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6.06.30 11:56



▲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 사진/공주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직원 일동이 30일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공주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농촌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직원들이 공주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

특히 박수진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수진 지사장은 “공주시 농업 발전과 늘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공주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